



도, 새로운 도약 마중물 '지역개발사업 추진' 박차

2018~2027년 5613억원 투입... 올해 투자선도지구 등 7개 공모 선정
2028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할 '제2차 지역개발계획' 내달 착수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5,61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교통·관광·문화·지역특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성장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1차 지역개발계획' 기반 지역개발사업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2018년 '전북특별자치도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체 54개 사업 중 2024년까지 4,044억원을 투입해 3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진안 학전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384억을 투입해 전체 사업의 80%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순창 장류밸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단지 기반조성과 진입도로 조성을 통해 지역 전통의 특색을 살린 특화단지

로 완성하였고,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활성화 조성사업'의 경우 육정호 구절초 정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놀이시설 조성 등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투자선도지구 등 4개 분야 공모에 7개 사업 선정, 국비 222억원 확보

도는 매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군 대상 지역개발사업 공모분야에서의 성과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4개 분야 공모에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22억원을 확보, 작년 4개 사업 국비 확보액 13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성과를 냈다.

상반기에는 국토부·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장수와 순창이 선정되었고, 작년보다 선정규모가 대폭 감소되어 전국 5개소만 선정된 민간상생투자협약 공모에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실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하반기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에도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 '정수 방화중 국민관광지 활

성화' 등 4개 사업이 선정,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선정 명단에 전북은 모두 이름을 올렸다.

▲ 새로운 전북 도약의 마중물이 될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난 10년간 전북 성장의 앞장 밑거름이 되었던 제1차 지역개발계획의 목표연도가 2027년부터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전북의 미래 비전과 가치를 담아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이 될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지역개발계획(2028~2037)'을 12월 착수한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개발계획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북의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부합되고 실현성과 정책성을 모두 갖춘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사업이다.", "계속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전략을 담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25 피지컬 AI 글로벌 포럼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피지컬 AI 글로벌 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동영·최형두·이상운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류제명 과기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연기사 2면>

“연말 안에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김운덕 국토부장관, LH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서... “대상 택지 등 검토”

오늘 오후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식 참석... 공사 관계자 포상·격려

전북 출신인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연말안에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대상 택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공급TF 및 LH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을 갖고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상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지를 놓고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것과, 노후청사 개발,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생각”이라며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해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한 “현재 국토부 제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의 중요한 변수”라며 “하투밸리 1차관과 LH사장을 임명해 공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신설에도 의지를 밝히며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



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분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의 주택정책 및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18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80~90%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일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합동TF와 LH주택공급특별본부 출범과 관련해서 “지난 몇년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주택공급 절벽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투밸리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해내는 게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김운덕 국토부장관은 21일 오후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식

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들을 포상 및 격려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도, 9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2755곳에 총 55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55곳에 총 55억원의 도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된다.

도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9월 호우로 시설물이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관할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각 시에 교부했으며, 각 시는 11월 중 피해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7일 '전주 드림 코리아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

체육·언론·학계 전문가 참여... 하계올림픽 실현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 전주 DREAM KOREA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기치로 전국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전략 논의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김관영 도

지사, 전현희 국회의원,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비롯해 체육계, 언론계,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심포지엄의 발제는 계은영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 교수와 정관호(현)모노플레이 대표가 맡는다. 두 발표자는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의 의미, 대한민국의 세 번째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 전북의 지역 특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 토론에는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 부장, 권종오 SBS 스포츠취재부 선임기자 등이 참여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 공감대를 더욱 확대하고, 세계에 K-스포츠와 K-컬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유치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